

중국의 노동시장 상황 : 평가 및 전망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머리말

2015년은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다. 12·5계획은 더욱더 적극적인 취업 정책과, 공공취업서비스의 강화 및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예기성 지표¹⁾를 제시했다. 첫째는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을 5.0%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를 4,500만 개(연간 900만 개) 창출하는 것이었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12·5계획 기간의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05~4.1%로 제시되었던 5% 이내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도시지역에서 새로 일자리를 구한 인원은 6,421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였던 4,500만 명을 크게 앞섰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²⁾에서 괄목

1) '예기성 지표(預期性指標)'란, 국가가 희망하는 발전 목표로 주로 시장주체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지표이다. 이에 반해 '구속성지표(約束性指標)'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양호한 거시, 제도 및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적시에 거시조절, 각종 정책의 종합적인 운용을 통해 사회자원 배분을 유도하고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표를 말한다.

2) 지난 2016년 1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중국의 GDP는 67조 6,700억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6.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던 바오치(保七)가 무너졌고,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할 만 한데, 이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평가가 존재한다. 첫 번째 평가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의 여력은 아직 남아 있고,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및 중국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해 2015년 노동시장이 대체로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평가는 노동시장이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인배율의 감소,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감소, 조사실업률 증가, 일부 지역의 외자철수, 생산설비 이전, 정부의 과잉생산업체 및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것이다.³⁾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2016년 중국사회 형세분석 및 예측(201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이하, ‘사회청서’)』⁴⁾, 『2016년 중국 경제 형세분석 및 예측(2016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이하, ‘경제청서’)』⁵⁾, 『중국인구와 노동문제보고 NO.16(中国人口与劳动问题报告NO.16, 이하 ‘인구와 노동녹서’)』⁶⁾ 및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관련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2015년 중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2016년 전망을 간단히 소개한다.

■ 2015년 중국 노동시장 현황 및 평가

2015년 중국 노동시장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1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도시 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는 1,31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감소했으나, 한 해 목표치인 1,00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동시에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전년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4.05%로 목표치인 4.5% 이내로 통제되었다(그림 1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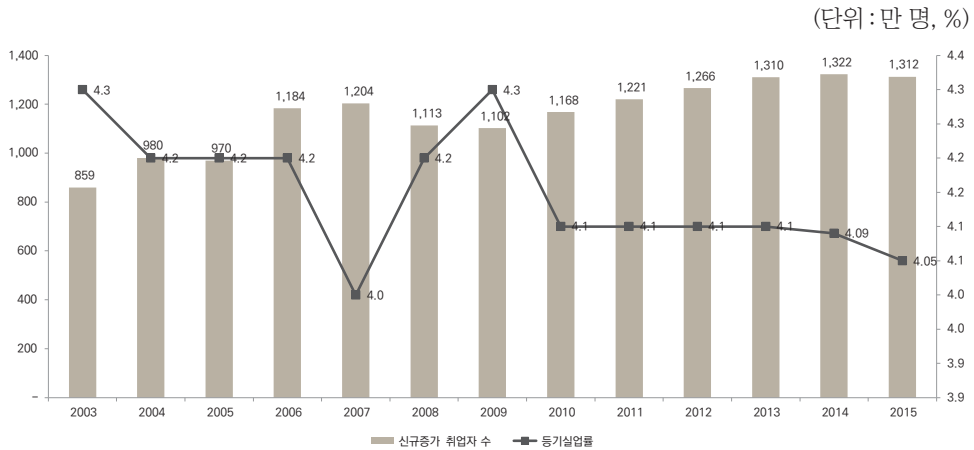
3) 乔健(2015), 「2015年:迈向“十三五”时期的中国职工状况」, 『201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243.

4) 李培林·陈光金·张翼(2016), 『201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5) 李扬·李平·李雪松·张平(2015), 『2016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6) 蔡昉·张车伟(2015), 『中国人口与劳动问题报告NO.16』, 社会科学文献出版社.

[그림 1] 신규증가 취업자 수 및 등기실업률 변화 추이(2003~2015년)



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연도별 인력자원(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조).⁷⁾ 조사실업률은 5.01%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⁸⁾

또한 인력수급도 균형을 유지했다. 중국 인력자원 시장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수급정보에 따르면,⁹⁾ 2015년 4사분기 고용단위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전년동기대비 46.9만 명(9.8%포인트), 전분기대비 47.7만 명(10%포인트) 감소한 439만 명이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구직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4.6만 명(5.9%포인트), 전분기대비 46만 명(10.5%포인트) 감소한 400만 명이였다(표 1 참조). 구인배율은 전년 동기대비 0.05 감소, 전분기대비 0.01 증가한 1.10로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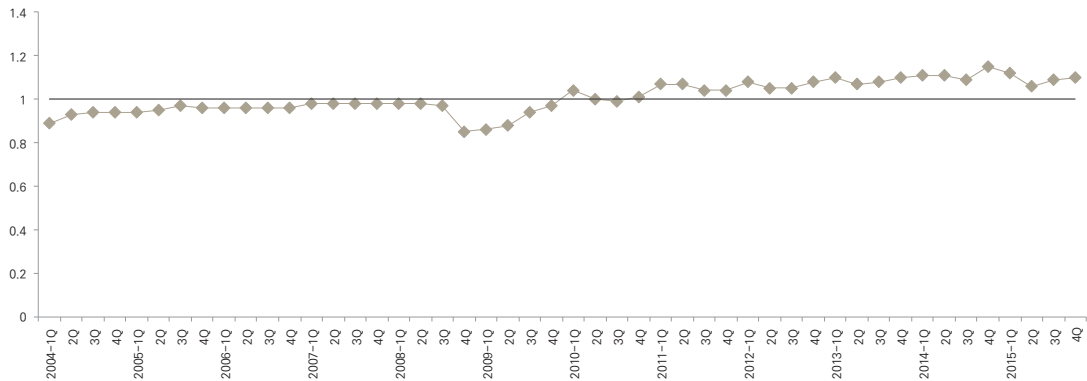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구인배율은 각각 1.08, 1.13, 1.13으로 공급되는 인력이 수요보다 더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동부지역의 인력수요는 12.3만

7) “2015年四季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工作进展情况和下一步工作安排”,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601/t20160127_232547.htm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8) “李源潮接受彭博新闻社专访谈中国经济发展形势”, 자세한 내용은 <http://news.jxnews.com.cn/system/2016/01/22/014642338.shtml>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9)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그림 2] 구인배율 변화 추이(2004~2015년)



자료: 중국취업넷(中国就业网),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명(4.5%포인트) 감소했고, 공급은 1.5만 명(0.6%포인트) 증가했다. 중부지역의 인력수요는 12만 명(11.8%포인트) 감소했고, 공급은 7.4만 명(8.6%포인트) 감소했다. 서부지역의 인력수급과 공급은 각각 22.6만 명(22%포인트), 18.7만 명(21.2%포인트)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동부지역 인력수요와 공급은 각각 21.2만 명(7.5%포인트), 19.9만 명(7.6%포인트) 감소했고, 중부지역 인력수요와 공급은 각각 18.9만 명(17.5%포인트), 18.4만 명(19.3%포인트) 감소했으며, 서부지역 인력수요와 공급은 각각 7.6만 명(8.5%포인트), 7.7만 명(9.6%포인트) 감소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흥 산업의 발전이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등 신흥 산업의 노동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속되었다. 특히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취업창업을 촉진하고,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¹⁰⁾’을 추진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정했으며, 동시에 유효한 정책실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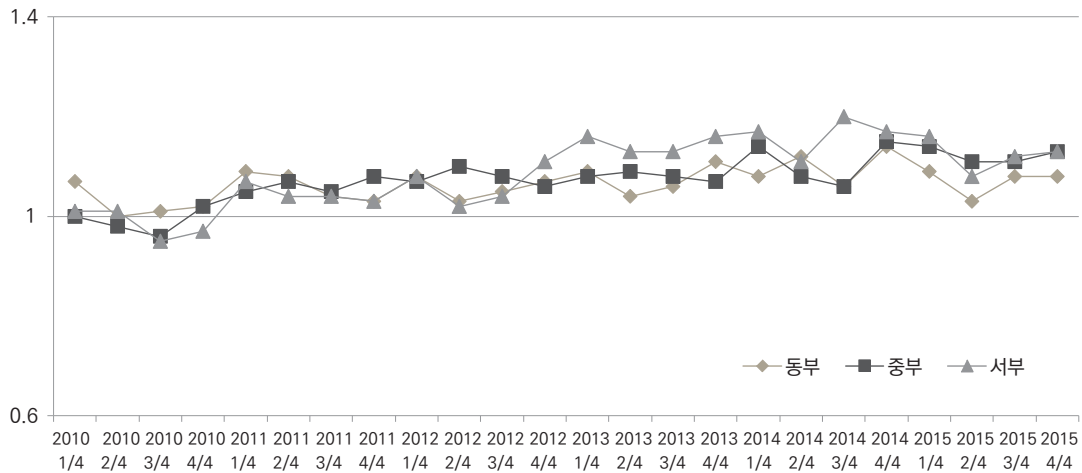
10)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이란 창업을 활성화하고 만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4년 10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전폭적인 창업지원 선언이다.

<표 1> 2015년 각 분기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조사대상 도시 수(개)	노동수요(만 명)	노동공급(만 명)	구인배율
2015년 1/4분기	100	525	469	1.12
2/4분기	101	560	528	1.06
3/4분기	101	505	462	1.09
4/4분기	97	439	400	1.10

자료: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그림 3] 지역별 구인배율 변화 추이(2010~2015년)



자료: 중국취업넷(中國就業網),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추진하여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욱더 부각되었다. 2015년 새로 설립된 기업 수는 443만 9천 개로 전년대비 21.6% 증가했고, 1일 평균 1만 2천 개 업체가 설립되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설기업의 증가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징표이다.¹¹⁾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 취업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15년에도 중국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여 창업지원, 창업서비스, 창

11) “2015年中国日均“出生”企业1.2万户 创历史新高”,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inanews.com/cj/2016/01-13/7715173.shtml>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업훈련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¹²⁾

신흥 산업의 인력수요 증가

업종별로 보면, 중국이 '신상태(新常态, 신창타이) 경제시대'에 진입하면서 일부 신흥 산업과 신종 업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금융, 물류 등 업종의 인력수요가 동기대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과잉생산 해소와 관련된 업종과 일부 전통업종은 기업경영난 심화로 인력수요가 위축되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 업종은 2015년 이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 4/4분기 일부 도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수급 상황분석」¹³⁾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정보전송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교통운수창고와 우정업,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인력수요가 각각 23.7%포인트, 17.3%포인트, 1.0%포인트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업종의 인력수요가 모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건축업(-26.1%포인트), 부동산업(-16.0%포인트), 제조업(-14.5%포인트), 숙박요식업(-9.4%포인트), 도소매업(-8.3%포인트) 등이다. 전분기대비 역시, 교통운수창고와 우정업,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 광업, 전력가스 및 상수도 생산과 공급업 등이 각각 5.3%포인트, 1.2%포인트, 5.6%포인트, 1.6%포인트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업종의 인력수요가 모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건축업(-17.0%포인트), 금융업(-15.5%포인트), 부동산업(-15.2%포인트), 숙박요식업(-13.2%포인트), 제조업(-12.7%포인트) 등이다.

12) 莫荣·陈云(2015), 「2015年中国就业:创新创业促进就业」, 『201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39~40.

13) 자세한 내용은 http://chinajob.gov.cn/DataAnalysis/content/2016-01/29/content_1138761.htm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초급, 중급, 고급 전문기술인력의 노동수요 감소

인력수요 측면에서 보면, 57.8%가 노동자의 기술등급(35.8%) 또는 자격(22.0%)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57.5%의 구직자가 일정한 기술등급(36.5%) 또는 자격(21.1%)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력수급 대비에서 보면, 각 기술등급의 구인배율은 모두 1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고급공정사, 기사, 고급기사의 구인배율은 각각 1.99, 1.9, 1.89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기사(9.1%포인트)에 대한 인력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기술등급에 대한 인력수요가 모두 다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초급, 중급, 고급 전문기술직무가 각각 -29.7%포인트, -9.1%포인트, -8.0%포인트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고급기사(3.6%포인트)에 대한 인력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기술등급의 인력수요가 다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초급, 중급, 고급 전문기술직무에 대한 인력수요는 각각 -7.9%포인트, -10.8%포인트, -1.4%포인트 감소했다.¹⁴⁾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인구보너스 효과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보너스 효과가 빠르게 소실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현재 16.1%(2억 2,200만 명)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¹⁵⁾ 이 비중은 매년 0.8%포인트씩 증가하여 2020년 19.3%, 2050년 3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저출산 현상도 심화되

14) 자세한 내용은 http://chinajob.gov.cn/DataAnalysis/content/2016-01/29/content_1138761.htm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15)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ats.gov.cn/tjsj/zxfb/201601/t20160119_1306083.html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고 있다. 제6차 인구센서스(2010년)에 의하면, 2020년까지 23~28세 가임여성 수는 44.3% 감소할 것이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2년 최초로 노동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 960만 명이 순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18년까지 지속되고 그 후 잠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 유소년 인구 급격한 감소와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중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20~59세 노동가능인구는 2010년 대비 8.3%포인트 감소한 7.64억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예비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중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급관계가 역전되어 인건비 상승 및 노동분쟁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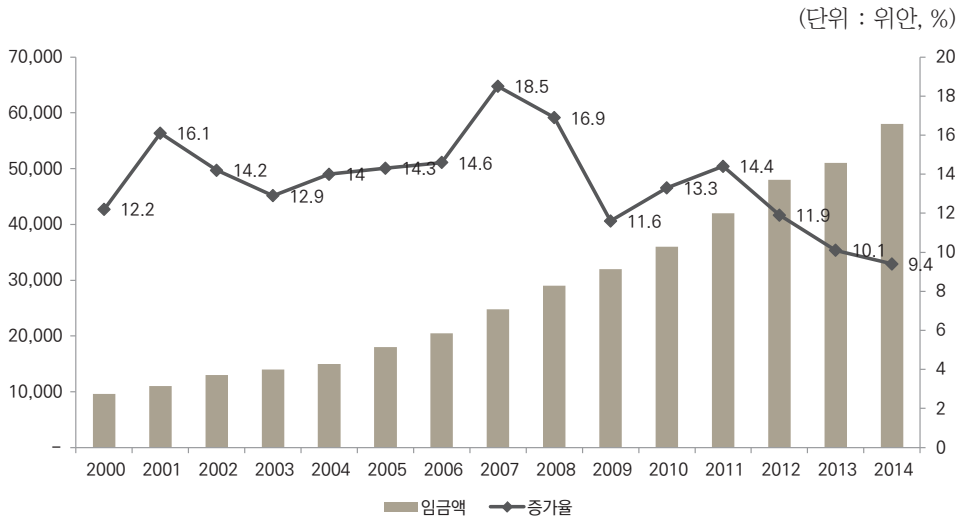
인건비 증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인건비 상승을 부추겼다. 먼저, [그림 4]에 나타난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노동자¹⁷⁾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평균임금은 56,339위안으로 2013년의 52,233위안보다 9.4%포인트(실질증가율은 7.1%포인트)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이래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다소 주춤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잠시 회복세를 보였다가 2012년과 2013년 임금증가율은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실질임금 증가율은 비교적 높았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낮지만, 2010년 이래 여전히 연평균 8.7%포인트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주목할 점은 2013년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6.7%포인트, 2014년은 7.1%포인트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16) 乔健(2016), 「2015年: 迈向“十三五”时期的中国职工状况」, 『201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249~250.

17) 도시지역 비사영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제합작기업, 연합경영,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 외상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그림 4]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노동자 임금수준 변화 추이(2000~2014년)



자료 :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1505/t20150527_111063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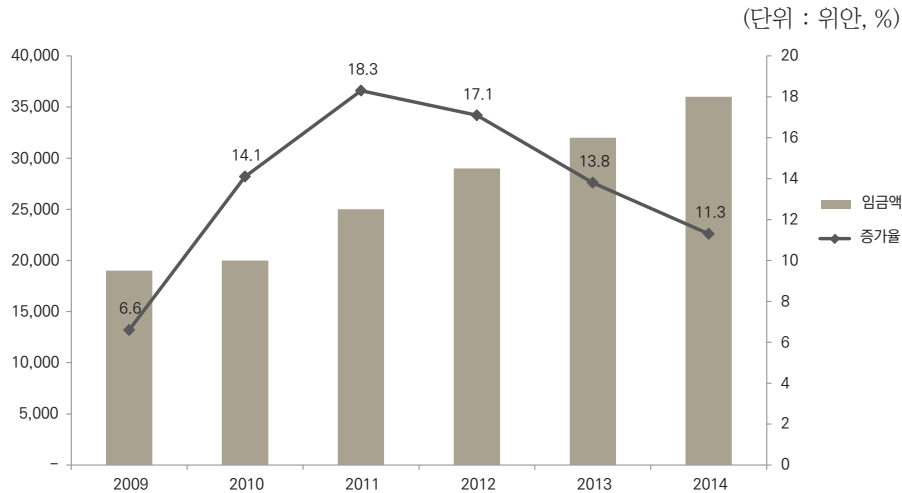
다음으로, 농민공의 임금수준은 인력수급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중국 제1차 전국 농촌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중국의 농민공 수는 1억 3,900만 명이었고, 이 중 외출농민공¹⁸⁾은 7,200만 명, 해당 지역 농민공은 6,700만 명이었다. 2014년 현재, 농민공 수는 2억 7,395만 명으로 전년대비 501만 명(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출농민공은 1억 6,821만 명으로 전년대비 211만 명(1.3%포인트) 증가했고, 당해지역 농민공은 1억 574만 명으로 290만 명(2.8%포인트) 증가했다.¹⁹⁾

2010년 이후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외출농민공의 임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농민공의 월소득은 664위안에서 2014년 2,864위안으로 증가했다.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한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9.5%이다. 외출농민공의 임금증가율은 2007년 이전까지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노동자보다 크게 낮았고, 이 시기 두 계층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

18) 외출농민공이란, 농민공 가운데 호구가 있는 향진지역 이외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농촌노동력을 말한다.

19) 张车伟·赵文(2015), 「我国劳动报酬水平变化与工资改革」, 『中国人口与劳动问题报告No.16』,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193~196.

[그림 5] 외출농민공 임금수준 변화 추이(2009~2014년)



자료 :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1505/t20150527_1110632.html

었다. 2008년부터 외출농민공의 임금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인상률이 감소했다.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농민공의 임금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을 앞질렀다.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한 2013년 농민공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11%포인트로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노동자의 증가율(6.7%포인트)보다 4.3%포인트 앞섰다.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31개 성급행정단위 가운데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베이징(北京) 등 28개 지역(27개 성급행정단위와 1개 경제특구)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중국의 현행 ‘최저임금규정’은 2년에 적어도 1회 이상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랴오닝(辽宁), 허베이(河北), 칭하이(青海), 장쑤(江苏) 등 4개 지역은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²⁰⁾ 선전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올해 최초로 월 2,000위안을 넘어선 월 2,030위안이고, 비전일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18.7위안이며, 평균 인상률은 14.0%이다.

20) 2015년 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과 시행일은 <http://www.pcpop.com/doc/1/1566/1566080.shtml>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6일).

노동분쟁 및 파업 등 단체행동 증가

2015년 중국 각지 노동인사분쟁 조정조직과 중재기구에서 처리한 노동분쟁 안건 수는 172.1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²¹⁾ 2015년 3사분기 현재, 중국 각지 노동인사분쟁 중재기구에서 수리한 안건 수 및 관련 노동자 수는 각각 60.7만 건, 85.2만 명으로 각각 16.3%포인트, 1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의하면, 경제발전, 사회진보, 법제건설에 따라 노동자 요구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했고, 노동자의 권리보호 의식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노동관계학원 차오쥬엔(乔健) 교수는 현재 중국 노동분쟁은 ① 노동자 요구, 표현방식, 분쟁 당사자가 다원화되었다는 등의 다접점(接点多), ② 분쟁이 많아 처리가 어렵고, 노동자의 요구가 많아 조정이 어려우며, 외부의 간섭이 많아 공정한 판정이 어렵다는 등의 큰난점(难点大), ③ 노동분쟁이 우연한 계기에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등의 저발화점(發火点低), ④ 사안이 간단한 작은 분쟁이 큰 분쟁으로 변하고, 간단한 분쟁이 복잡한 분쟁으로 변하며, 비대항성이 대항성으로, 개별분쟁이 집단분쟁으로 변한다는 등의 고열점(热点高) 등의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²³⁾

동시에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폐업 또는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파업 등 노동자 단체행동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노동통신(中国劳工通讯, China labor bulletin)의 파업지도(Strike Map)²⁴⁾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2,774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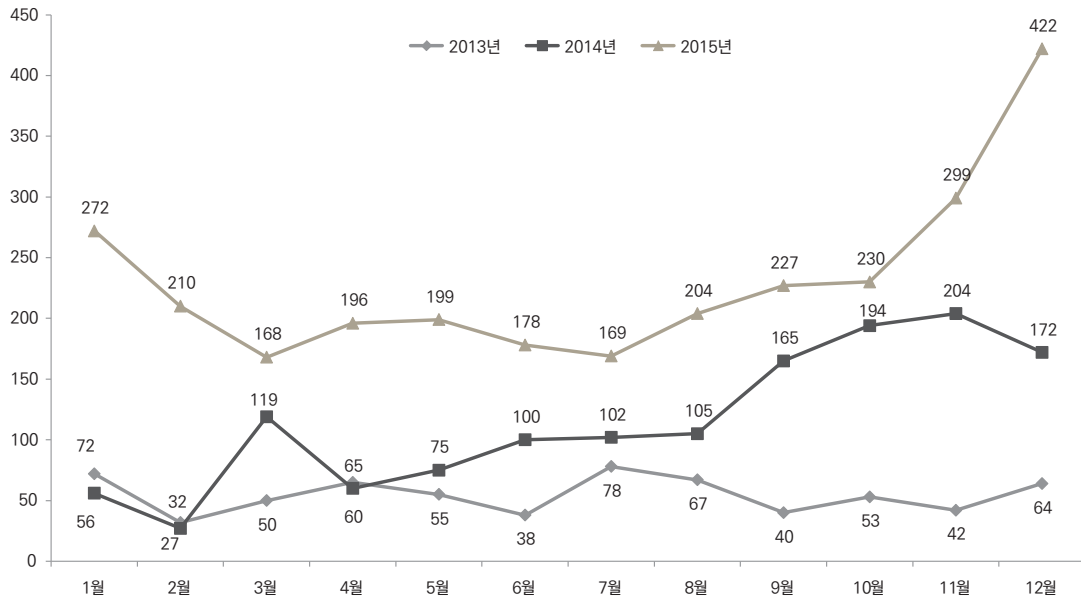
21) “2015年四季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工作进展情况和下一步工作安排”,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601/t20160127_232547.htm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22) “2015年三季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工作进展情况及下一步工作安排”,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510/t20151028_223966.htm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23) 乔健(2016), 「2015年:迈向“十三五”时期的中国职工状况」, 『201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247~248.

24) 중국 정부는 파업 등 노동자 집단행동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홍콩 노동 NGO인 중국노동통신은 인터넷, 사회관계서비스(SNS),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

[그림 6] 파업 등 단체행동의 발생건수 변화 추이(2013~2015년)



자료 : 중국노동통신(中国劳工通讯, China labor bulletin), <http://maps.clb.org.hk/strikes/en>

파업 등 단체행동이 발생했다(그림 6 참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발생 건수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하루 평균 약 7.6건이 발생해 파업 등 단체행동이 이미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둥성(广东省)이 418건, 산업별로는 건축업이 993건, 원인별로는 임금체불이 2,109건²⁵⁾, 경제유형별로는 사영기업이 1,524건으로 가장 많은 파업 발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파업의 일상화로 파업 등 비규범적인 노동분쟁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경찰이 개입한 파업이 831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파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도 183명이나 된다.

분석한 파업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maps.clb.org.hk/strikes/en> 참고(최종검색일: 2016년 1월 27일).

25) 최근 중국파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파업의 성질이 '권리보호형'에서 '이익추구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술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금체불 등 권리보호형의 파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임금체불이 많은 건축업의 파업이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원인이 있지만, 중국당국의 파업에 대한 태도가 유연에서 강경으로 바뀌면서 이익추구형 파업이 권리보호형 파업 뒤에 숨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 2016년 중국 노동시장 전망

IMF는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몇몇 경제연구소들은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예측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예상을 뛰어 넘어 현실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기업의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12월 중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 구성항목 가운데 고용지표는 49.1로 2015년 8월 이후 연속 5개월째 임계점(5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기업이 신규채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중국 정부가 밝힌 공식 실업률은 4.05%이다. 하지만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현장의 일선 노동자, 즉 농민공은 이 통계 범위에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수출 감소, 내수 부족 등 과잉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국유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잉여 노동력을 임의대로 감원할 수 없어 기업 내 수많은 음성실업자가 존재한다. 또한 민영기업은 줄어든 주문량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줄어들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성장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15년 중국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산업보다 10%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2차 산업의 GDP 비중은 감소했지만, 3차 산업의 GDP 비중은 증가했다. 3차 산업은 2차 산업보다 고용유발 계수가 높아 경제성장세 둔화에서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아직 남아 있고, 실업률도 낮게 유지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확대,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인건비 인상 등 근본적인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어 불안한 모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LI**